

뉴스 & 뉴스

두레회, 소쩍새마을 위문

행정자치부 간부 부인회 모임인 두레회(회장 김현옥)는 지난 15일 소쩍새 마을을 방문. 위문품과 후원품을 전달하고 세탁, 목욕, 식사제공 등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장·차관 부인 등 두레회 회원 25명은 수용시설을 둘러보고 환경 종합복지타운 건설을 위해 펼쳐지고 있는 '벽돌 1백만장 쌓기 운동'에 동참했다. 94년 발족한 두레회는 불교·기독교·천주교 신자 등으로 구성된 종교를 초월한 봉사모임이다.

한명우 기자

19일 호국용마사 개원

육군 제51 탄약대대는 19일 의정부 관음동 관음사 주지 정암스님을 중명법사로 호국용마사 개원법회를 거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대장장 김명규 중령과 최해명 지도법사 등 장병부자 2백여명이 참석했다.

김재경 기자

외국인노동자 장기자랑

부천 외국인노동자의 집은 16일 석왕사에서 네팔, 방글라데시, 미얀마, 스리랑카 등 외국인노동자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념축제를 열었다.

이날 외국인노동자 장기자랑에서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의 전통가요, 춤공연이 다양하게 펼쳐졌다.

김원우 기자

네덜란드인 영가천도재

조선시대 우리나라에 왔다가 희생당한 네덜란드인을 위한 영가천도제가 열린다.

심우회(회장 김명민)는 한국항해탐험연구소(소장 채비다)와 함께 6월 1일 중문해수욕장에서 영가천도재를 열고 '하멜표류기'를 써서 한국을 유람에 처음으로 알린 이들의 은덕을 기린다.

한편 채비다소장은 "하멜의 도착지점은 지금까지 알려진 남해주군 안덕면 사계리 용머리관광지가 아니라 중문해수욕장"이라고 주장했다.

김원우 기자

종교인 1080인 인권선언

19일 불교인권문화제

고산 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한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인 1천80명이 19일 조계사에서 인권선언을 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조계종 사회부와 실천 불교승가회, 조계사가 주최해 19일 조계사 대웅전앞에서 열린 제1회 불교인권문화제에는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하여 이땅에서 고통받고 소외받는 이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1,2,3부로 나뉘어 진행된 인권 문화제에서 합세옹신부(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가 낭독한 인권선언을 통해 1080명 종교인들은 "지난 반세기동안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짓밟아온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해야 할 명분도 가치도 없다"며 "우

리 종교인들은 모든 국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명실상부한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기구의 창설을 촉구한다"고 천명했다. 이어 문성근(영화배우)씨의 사회로 '99 이땅의 자비와 평화'를 주제의 콘서트가 열렸다. 콘서트에는 송시현, 김무한, 솔리스트, 권진원, 꽃다지, 최희준씨가 출연하여 참가자들에게 음성공양했다.

이제앞서 불교인권문화제 특별행사로 나눔의 집 할머니와 장기수들의 만남이 음식점 초창에서 있었다. 이날 콘서트에서 얻어진 수익금은 민간협과 불교장기수후원회, 조계사 농성단에 전액 전달됐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전통혼례 - 노인잔치 - 문안전화

교계복지관 초파일프로 '독특'

부처님 오신 뜻을 기리고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사찰 및 교계복지관이 다양한 행사와 독특한 프로그램이 마련하고 있다.

자양사회복지관(관장 공영애)은 관내 70세 전후의 생활보호대상자중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10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26일 오전 11시 한강 위너스 마리아 선상무대에서 민속전통혼례를 개최한다. 또 혼례식과 함께 지역내 독거노인 130명을 초청해 칠순잔치도 연다. (02)458-1664

옥수종합사회복지관(관장 상덕)은 '무의탁노인 요구르트 배달 사업'과 '어르신 문안 전화' 후원자를 모집한다. 요구르트 후원원은 노인 1명이 1년간 요구르트를 먹을 수 있도록 4만원을 후원하면 되며, 문안 전화는 무의탁 노인들에게 정기적으로 안부전화를 하는 자원봉사형식이다. (02)2282-1100

부산 두승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지현)은 6월4일 관내 사하구 거주 노인 7백여명을 대상으로 송광사를 참배하는 '제2회 어르신 일일 나들이'를 개최한다. 세계노인의 해를 기념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함양하기 위한 이번 행사는 자원봉사자 1백여명이 함께 동행하며, 레크리에이션도 진행될 예정이다. (051)265-9471

남양주 백천사(주지 무구)는 남양주시 복지과와 함께 지역내 노인 2백여명을 대상으로 27일 낮 12시 경로잔치를 개최할 예정이며, 서울 수효사(주지 무구)와 흥동중 현성정사(주지 현성), 강북장애인복지관(관장 해창)은 지난 19, 20일 각각 경로잔치 행사를 가졌다. 또 속초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지홍)과 고성 운흥사(주지 능륜), 양양 낙산사(지홍)도 13, 15, 17일 각각 노인잔치를 개최했다.

한명우 기자

“록음악 타고 부처님 오셨네”

21일 결식아동돕기 록 페스티벌 청소년 1천명 환호

카르마·시나위·부활등 록그룹 '한자리'

"사오정은 수공계/모든 잡귀 막아서/삼장법사 모시고/경을 구해 평화 얻네// 탈탈탈..." 찢어질 듯한 전자 음악의 반주에 맞춰 신세대 찬불가요 '사오정'이 흥겹게 울려 퍼지자 1천여 청소년들이 일제히 박수치며 박자를 맞춰준다. 21일 봉곡기념 결식아동돕기 록 페스티벌이 열린 잠실올림픽 공원내 펜싱경기장. 불자들은 구성된 록그룹 '카르마'를 비롯해 시나위, 부활, 신촌블루스, 김경호 등 국내 정상급 록 그룹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화려한 사이키 조명과 자욱한 안개 특수 효과 사이로 무대 위에 등장한 그룹 '카르마'. 스피커가 울려 퍼질 듯이 열정적인 음성으로 "...유심속 진리있어 부처님 그 말씀에 육신되어 마음 비우면 이세상 누구라도 생불이라네..." '유심속' 등을 부르며 부처

님 가르침을 흥겨운 리듬에 실어 전한다. "박수만 치지 마시고 이 뜨거운 음악이 온 사바세계의 중생들에게 다 울려 퍼지게 온몸으로 보여 주세요." 보컬 리더 김지웅이 소리치자 기다렸다는 듯 청소년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온몸을 흔들며 환호를 보낸다. 한 손에 야광봉을 들고 무대를 향해 팔을 뻗치는 남학생. 머리위로 두 손을 들어 박수치며 노래를 부르는 여학생. 친구들과 어깨동무 하며 제자리에서 강중 강중 뛰는 사람 등 역시 신세대 청소년들은 표현 방식이 다양하고 솔직하다. 경건하고 조용한 찬불가와 달리 시끄럽지만 발랄하고 젊은이들의 호응이 높은 록에 실린 불음(佛音)을 듣는 청소년들의 반응 또한 예상외다. 신선하고 감각에 맞아 좋다는 것.

공연에 몰입돼 온몸에 땀이 뻘뻘 났던 김지웅(정신여고 1년)은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마련된다면 타종교를 가진 친구들과 함께 참가하고 싶다"고 즐거워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고산 조계종 총무원장스님은 "음악을 통해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부처님의 가르침을 신세대 감각의 록 리듬으로 바꾼 불교 록그룹 '카르마'의 열창하는 모습.

스님 형이 전도사 동생에게 장기기증 뇌사자들 장기 4명에 새 삶

전남 장성 백암사 운문암에 기거하며 수도정진하고 있는 계성스님은 경남 진주에서 전도사의 길을 걷고 있는 동생 홍상씨(31)에게 지난 1월 망설임없이 신장을 떼준 사실이 20일 알려졌다. 신장조직이 맞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은 일. 가는 길이 멀다. 일년에 한 번 얼굴 보기 힘든 상황에서 뜻밖에도 형이 병실을 찾아왔고 수술은 무

사히 끝났다. 만성신부전증으로 근근히 생명을 유지하던 홍상씨는 이제 다음달이면 목회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계성스님은 "비록 가는 길이 달라도 사는 이치는 같은 것 아니냐"는 한마디 말만 던지고 다시 절로 떠났다. 충남 당진에 사는 김성희(38)·조미라(36) 부부는 5월10일 용인 에버랜드로 소풍을 가

던 중 교통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진 아들 덩이군(11, 당진 신계초등학교 4년)의 장기를 기증, 19일 아주대병원에서 간, 신장, 심장판막 등 장기이식 수술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주었다. 이들 부부는 부산 나란정사에 다녔던 독실한 불자라.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게 덩이의 뜻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덩

이군의 동생이 장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처지에서도 장기를 기증해 주위사람들의 더욱 애뜻하게 만들었다. 이들 부부는 수술이 이뤄지고 있는 자리에서 아들의 뜻을 잇기 위해 사후 각막기증, 뇌사시 장기기증 등 사후에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뜻을 생명나눔실천회에 밝혔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봉은사, 공부도량으로 탈바꿈

봉은학림 개설...6월14일부터 한달간 화엄특강

몇 차례 분류로 몸살을 앓았던 로 탈바꿈. 그 동안 실추됐던 이 책을 봉은사가 공부하는 도량으로 미지를 개선하고 포교와 수행을

선도하는 '새 봉은사 만들기'에 나섰다.

봉은사(주지 원해)는 19일 포교와 함께 수행공간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나아가 불교미래를 위한 으뜸도량으로 태어나기 위해 '봉은학림'을 개설했다. '봉은학림'은 특강과목을 일정기간 강의하는 특강형식으로, 서울 경지역 스님 70명을 대상으로 6월14일부터 7월15일까지 화엄경 입법계법을 강독경전으로 한 '화엄특강'을 실시한다. 학림개설 취지에 맞춰 각 대학 교수 및 화

엄경을 수강할 수 있는 일반불자 50명을 청강생으로 받아들인다. 강의는 매주 월·화·수·목요일 진행되며, 강사는 각성스님(화엄학회 회장), 봉은사는 1차 강좌를 진행하면서 향후 봉은학림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봉은사는 '봉은학림'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필요에 따라서는 화엄학림이나 능엄학림과 같은 종단교육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봉은학림의 실무를 맡고 있는 봉은사 현기스님(기회실장)은 "봉은사 이미지 개선은 물론 도심 속의 공부하는 사찰로 변화하고자 하는 봉은사의 학림 개설이 도심의 여러 사찰들에게도 전파돼 공부 풍토가 조성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02)516-5652 한명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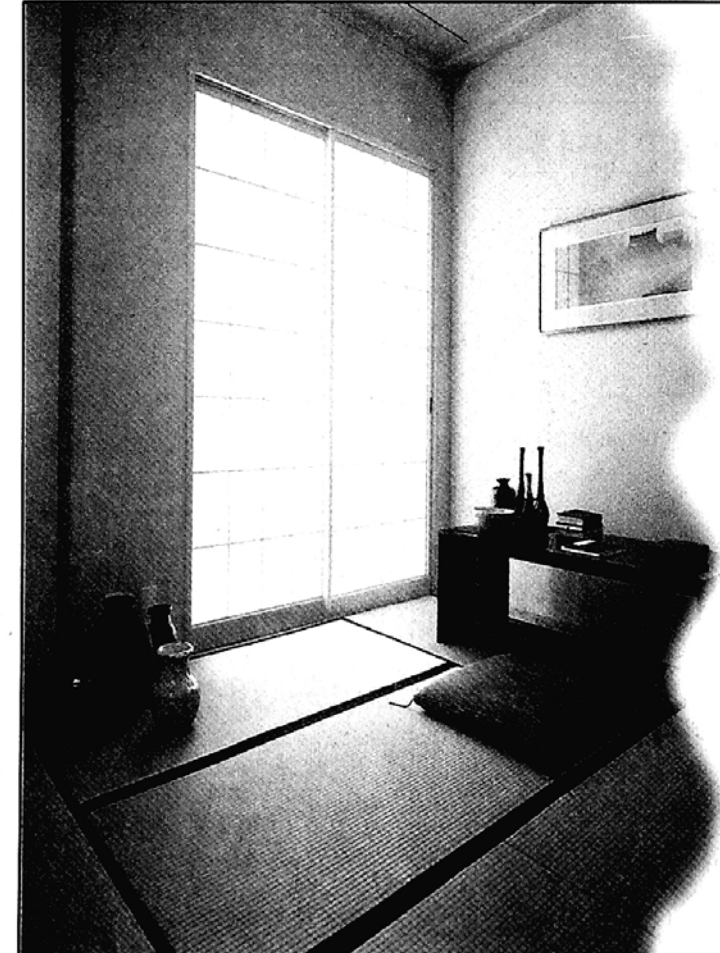
소쩍새마을 자비의 등 1천여개 밝혔다

승가와원 현대불교신문사가 이달 21일까지 소쩍새마을을 후원하기 위해 공동으로 펼친 '소쩍새마을 자비의 등 밝히기' 결과 총 700여명의 동참 속에 1천여개의 등이 소쩍새마을에 걸렸다. 후원금도 1천만원에 이를 정도로 참여열기가 높았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한 예상치 못한 결과로 불자들의 마음이 따뜻하다는 것을 입증시켜 주었다. 혼자서 10개의 등을 후원한 불자, 장애인 친구를 위해 등을 달아주고 싶다며 후원신청을 해온 어느 중학생, 신도들과 함께 후원금 1백만원을 들고 본사를 직접 찾아온 해안사 일본 포교원 평성사 주지 하



장재인등 소의된 이들이 모여서는 소쩍새마을에 십시일반 자비의 등 1천여개가 활짝 불을 밝혔다.

운스님. 이들 모두의 정성은 이 사회를 밝게 비추는 꺼지지 않는 '등불'로 피어올랐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얻은 후원금은 소쩍새마을 지원과 강원도 환경 종합복지타운 이전봉사 기금으로 쓰인다. (02)928-0750 한명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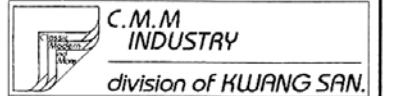


여러분 사찰의 모든 공간을 경제적이고 품격있게 연출하고자 하실 때 다미론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미 많은 불자님들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특허등록 제0200029호, 상표등록 제418243호, 다미론베드 특허출원 10-1999-0014792호)

저희 CMM 실업은 지난 50여년간 전통적 소재이고 자연재민 등심초 자리 바닥재를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하여 온 광산기업에 그 뿌리를 두고 불자님들의 건강과 생활의 격을 경제적으로 한껏 높여드릴 수 있는 다미론을 개발하여 전국사찰과 불자님의 택으로 보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불자님들께서 다미론의 세련된 디자인과 사용의 경제성에 찬사를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본사)서울 마포구 창전동 3-68 덕성B/D 203호 Tel:02-332-2799 Fax:02-332-2799
공정)광주광역시 북구 누문동 206-2 광산B/D Tel:062-526-1633 Fax:062-524-4123
(Internet Homepage)http://cmm.bz.co.kr (E-mail)cmmhome@chollian.net



21C 신제품 - 순통수막 '다미론' 시계절용 등심초 매트
◆전국시도 특약점 모집중

Table with 2 columns: Part (부분) and Description (내용). It lists specifications for the 'Damiwon' mat, including size (910x1,800x100), material (A8 mat), and price (3,000 ~ 5,000 won).